

2005년 10월 10일 (월)

보도자료  
장부, 사회부기차  
(총 2장)

☐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www.kgwelfare.or.kr](http://www.kgwelfare.or.kr)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30 화이트빌 4층 전화:031-215-4399 전송:031-215-4395 e-mail: kgwelfare@hanmail.net  
담당자:허윤범 (019-699-0219)

## 논 평

### 복지예산 편성은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된 주민참여 보장으로부터

경기도가 2005년 2회 추경예산을 복지추경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이후, 늘 사회개발비는 경제개발비에 밀려 났고, 사회개발비 중에서는 교육 및 문화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및 문화비 투자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경기도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보편적 투자보다는 투자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분야, 예를 들면 영어마을과 특목고 신설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성과도 미미하고 지자체 차원의 행사 성격도 약한 평화축제와 같은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는 등 그동안 도민의 복지수준 제고에는 큰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복지추경편성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복지추경예산 편성'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예산편성방식의 기본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올라온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들인 취약 계층 및 신빈곤 대책 등은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미 민선 3기 내내 발생하고 있었던 수요들이었다.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추경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이미 편성되었어야 한다.

또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예산편성 중 '비수급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 예산으로 3,768,930천 원을 편성하여 지난 1회 추경 대비 1,811,130천 원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도 970,000천 원이었던 것을 1회 추경에서

987,800천 원을 증액시켜 1,957,800천 원을 편성하였던 예산이다.

물론 이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 2004년 당시, 2005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1,000,000천 원이 올라왔으나 30,000천 원이 삭감되어 최종 970,000천 원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즉,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서는 대폭 증액(389%)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예산 심의 도의원들조차 이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 더욱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으나, 담당 보건복지국장은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감액 편성된 예산이었던 것이다.

이런 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서도 대폭 증액된 것은, 현재의 경기도 예산 편성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민의 삶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복지예산이라 함은, 어느 특정시기, 특정 예산에 편성될 성질이 아니라 모든 시기, 모든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복지추경 뿐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이 주민의 삶을 최우선에 놓는 복지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1회성으로 복지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에게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든다.

셋째, 경기도의 예산은 당연히 주민의 의사와 일선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삶과 연관이 깊은 복지분야는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이번에 특별히 보도자료에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회복지사 20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복지토론 방식의 여론 수렴을 통해 복지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의 말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인 손 지사가 지난 2002년 임기 이후 단 한 번도 이번과 같은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

4년 임기 중 단 한 번 만의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방식을 강구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이번 '복지추경예산 편성'이 1회성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 9월 초 있었던 각 실·국의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 수렴 등에 대해 반드시 사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 방식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0일

**경 / 기 / 복 / 지 / 시 / 민 / 연 / 대**